

金澤榮의 1909년 歸國과 安中植 筆 〈碧樹居士亭圖〉

강민경(姜旻景)

I. 머리말

II. 1909년, 김택영의 귀국과 활동

III. 〈벽수거사정도〉의 구성과 내용

IV. 1909년, 김택영의 교유 관계망

V. 맺음말

국립중앙박물관 고고역사부 학예연구사

주요 논저:

「고려 지배층의 신라 출자의식과 그 사회적 성격」, 『역사와 현실』 112(2019); 「새롭게 확인된 高麗 墓誌銘: 「金龍軾 墓誌銘」, 「上黨縣君 郭氏 墓誌銘」, 「閔脩 墓誌銘」, 『미술자료』 96(2019) 등

심전 안중식(1861~1919)이 그리고 창강 김택영(1850~1927)이 題詩와 記文을 지었으며 석은 권동수(1842~?)가 글씨를 쓴 〈벽수거사정도〉는 2018년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관에서 열린 “대한제국의 미술: 빛의 길을 꿈꾸다”에서 처음 세상에 공개되었다. 이 작품은 안중식의 드문 실경산수이며, 20세기 초 서울 상류주택의 면모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가치가 크다. 그러나 또한 이 작품이 당시 지식인의 교유 관계를 단적으로 드러낸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다.

〈벽수거사정도〉를 그리게 한 벽수 윤덕영(1873~1940)은 순종비 순정효황후 윤씨(1894~1966)의 백부이자 훗날 국권피탈에 일조한 인물이었다. 순종이 윤덕영에게 “벽수거사정”이란 현판을 하사하자, 그 기념으로 윤덕영이 만든 작품이 바로 〈벽수거사정도〉이다. 韓末 한문학의 대가로 꼽히는 김택영은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되기 1달 전 가족을 이끌고 청의 江蘇省 南通으로 망명을 떠났었는데, 1909년 다시 한국에 돌아왔다. 그의 귀국에는 이재완(1855~1922)과 윤덕영 등이 깊이 관여하고 있었다. 김택영은 역사서 편찬을 위한 자료수집의 목적을 품고 귀국하였지만, 그와는 별도로 평소 알던 사람들, 새롭게 알게 된 이들과 끊임없이 만나며 교유하였다. 그 범위는 서울을 넘어 지방에 살던 인물, 나아가 일본인에 이르기까지 매우 넓었다. 이는 당시 시문을 매개로 교유하던 지식인들의 관계망이 있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것은 그들의 정치적 성향이나 신분, 국적과는 별개로 작동하고 있었다. 〈벽수거사정도〉는 그러한 19세기 말~20세기 초 지식인 사이에서 일어났던 지적 교류의 한 면모를 보여주는 작품이라는 점에서도 그 가치를 찾을 수 있다.

주제어: 김택영, 안중식, 윤덕영, 벽수거사정도, 1909년

金澤榮의 1909년 歸國과 安中植 筆〈碧樹居士亭圖〉

강민경(姜旻旻)

국립중앙박물관 고고역사부 학예연구사

I. 머리말

滄江 金澤榮(1850~1927)은 韓末 한문학 4대가의 하나로 꼽힐 만큼 뛰어난 문인이었고 또 『韓史纂』, 『歷史輯略』 등의 저작을 남긴 근대의 역사학자이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받은 독립운동가였다.¹ 그런 만큼 김택영과 그의 작품을 주제로 한 연구는 적지 않다.² 하지만 그의 개인사는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면이 있다. 그가 보이는 反 왕조적 행동이나 「安重根傳」 같은 憂國詩文을 많이 썼던 이유로 출신지인 開城 지역의 특수성이나, 한미했던 花開金氏 가문의 위상을 논하는 데 머무르곤 한다. 어쩌면 연구자들은 김택영의 작품이 보여주는 시대성에 주목하면서도 그 작품을 낳은 개인이나 그의

1 국가보훈처 편, “김택영”, 『독립유공자 공훈록』 24(세종: 국가보훈처, 2019) 참조.

2 김택영을 주제로 한 연구는 일일이 거론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편이다. 최근의 대표적인 연구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김정미, 「창강 김택영의 여성담론 연구」, 『동양한문학연구』 46(2017), pp.67-92; 김민학, 「중국 망명 시기 창강 김택영의 출판 활동과 그 의의: 문목체편을 중심으로」, 『한국한문학연구』 56(2014), pp.459-497; 김승룡, 「창강 김택영 연구의 새로운 모색」, 『한국학논집』 70(2018), pp.239-282; 김우정, 「한국한문학 연구와 민족주의—김택영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문학논집』 47(2017), pp.129-152; 김종철, 「김택영의 「안중근전」 입전과 상해」, 『한중인문학연구』 41(2013), pp.23-55; 노관범, 「김택영과 개성 문인」, 『민족문화』 43(2014), pp.371-415; 박수천, 「창강 김택영 한시의 문학성과 그 시대적 의미」, 『석당논총』 64(2016), pp.103-130; 박종우, 「19세기말 한문지식인의 현실 인식과 문학 적 형상화—김택영과 황현의 시문을 중심으로」, 『비평문학』 37(2010), pp.229-251; 王敦琴, 「金澤榮與張謇詩之比較」, 『중국학논총』 33(2011), pp.129-151; 정재철, 「구한말 동아시아 지식인의 문화비전: 창강 김택영을 중심으로」, 『한국한문학연구』 47(2011), pp.201-235; 정해리·류창진, 「근대 한중 문화교류 소고—김택영과 장건의 교유를 중심으로」, 『중국인문과학』 50(2012), pp.371-390; 鄒振環, 「再論金澤榮與翰墨林書局」, 『亞洲: 文化交流與價值關釋』(上海: 復旦大學出版社, 2010); 한영규, 「1908년, 중국 후배가 뽑은 김택영의 시와 문장」, 『대동문화연구』 104(2018), pp.165-194; 한영규, 「김택영 한시를 바라보는 동시대인의 세 가지 시선」, 『국제어문』 79(2018), pp.161-187.

인간관계, 사회 분위기 자체에 대해서는 크게 염두에 두지 않았다고 보는 편이 맞을지 모른다. 하지만 김택영이 한 선택 또는 그의 사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김택영 자신의 행보와 인간관계를 먼저 제대로 검토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선입견을 걷어내고 그가 살았던 시대의 분위기 또는 역사상을 보다 잘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글에서 다루는 김택영의 1909년 일시 귀국도 대개는 역사서 서술을 위한 자료수집³ 정도로 설명되곤 한다. 하지만 스스로가 말한 것처럼 “국사가 떨치지 못하는 것 때문에”⁴ 망명을 떠났던 김택영인데, 단지 자료수집이라는 목적만으로 망명을 접고 돌아왔을까. 또 돌아온 김택영이 과연 어떻게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으며, 내세운 목적 이외의 뜻은 없었을까. 이 의문은 최근 국립현대미술관의 전시에서 소개된 心田 安中植(1852~1919)의 작품 〈碧樹居士亭圖〉로 인해 증폭된다. 뒤에서 자세히 서술하겠지만, 김택영이 題詩와 記文을 붙인 이 그림의 주인은 碧樹 尹德榮(1873~1940)이었다. 친일파로 알려진 37세의 외척 관료와 조국을 걱정하며 망명했다 막 돌아온 60세의 문인 학자라니 다소 어색한 조합이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이에 필자는 우선 김택영의 자전적 저술인 〈自誌〉에도 빠져 있는 김택영의 1909년 행적을 한국 고전번역원 고전종합DB에서 제공하는 『韶濩堂集』 詩集·文集 定本을 비롯한 김택영의 각종 작품과 동시대 주변인의 글, 신문 등을 통해 살피고, 〈벽수거사정도〉의 구성과 내용을 정리한 뒤 그 의미를 논하고자 한다. 김택영이 『한사경』에서 그토록 조선왕조와 왕실을 평가절하하였으면서도 현실에서는 왕조의 권력자와 가까이 지내는 면모를 보인 점이 흥미롭다. 이것이 가능했던, 곧 그런 김택영을 용납했던 당시 지식인 사회의 분위기도 살필 필요가 있어 보인다. 김택영 개인의 삶에서 공백으로 남아 있던 부분을 엿보면서, 그가 넘나들었던 교유 관계망 또한 거칠게나마 복원해보고자 한다.

II. 1909년, 김택영의 귀국과 활동

1905년(양력) 10월 19일 『大韓每日申報』는 다음과 같은 短信을 싣는다.

〈사료 1〉

學部編輯局委員 金澤榮氏는 본래 文學家로 著名한 사람인데 요즘 청나라 翰林家가 불러들여, 맡고 있던 職任을 그만두고 가족을 거느리고서 청나라로 넘어갔다고 한다.⁵

3 최혜주, 『滄江 金澤榮의 韓國史論』(서울: 한울, 1996), p.24. 이는 『梅泉野錄』 권6, 隆熙三年己酉, “澤榮素有刪述國朝史之意 而本國則有忌諱 中國又無考據 故欲因請邀 一還故國 哀聚史乘而去 遂東還.”에 근거한다.

4 『韶濩堂文集』 권15, 誌稿, 〈自誌〉, “以國事不振 欲避居中國.”

5 『快哉此行』, 『대한매일신보』(1905.10.19.), “學部編輯局委員金澤榮氏는 本是文學家로 著名한 人이라 近者에 淸國翰林家에 請邀가되야 所帶職任을 辭免하고 率眷渡淸하얏더라.”

“꽤재라, 이 떠남이여”라고 할 정도로 김택영의 망명은 당시에 상당한 화젯거리였고, 사람들에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다고 보인다. 學部에서 맡고 있던 자리를 벗어난지고 가족을 이끌고서 청나라로 건너간 김택영, 그의 망명은 을사늑약이 맺어지기 한 달 전에 일어난 일이었다. 그로부터 4년 뒤인 1909년 2월 21일, 김택영은 “回國”의 뜻을 품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나선다.⁶ 몸은 청나라 南通에 있었어도 그는 한국의 소식을 듣고 있어서, 을사늑약의 체결과 高宗(재위 1864~1907) 퇴위 등의 사건을 다 알고 있었다.⁷ 그럼에도 그는 다시 한국에 돌아왔다. 이는 1908년 무렵부터 張志淵(1864~1921), 安鍾和(1860~1924) 등이 추진해오고 있었는데, 실제 실현은 그 이듬해에 가서 이루어진 것이다.⁸ 거기에 결정적 역할을 한 인물이 〈사료 2〉에 나온다.

〈사료 2〉

淸國 上海에 살던 김택영씨가 엇그제 가족을 거느리고 귀국하였는데, 그 여비는 海豐府院君 尹澤榮氏의 형제가 각 30圓, 完順君 李載完氏의 형제가 각 20圓 합 100圓을 나누어 지급하였다고 한다.⁹

100원은 1910년 쌀값 기준으로 환산했을 때 약 274만원 남짓 하는 액수다.¹⁰ 이 여비를 각출한 이들은 순종의 장인인 해풍부원군 윤택영(1876~1935) · 윤덕영 兄弟와 고종의 사촌동생인 완순군 이재완(1855~1922) · 李載崑(1859~1943) 형제였다.¹¹ 흥미롭게도 황실의 외척 또는 친척인 거물 친일파 넷이 힘을 합쳐 김택영의 귀국 여비를 보탤던 것이다. 김택영은 이 여비를 받고 난통을 떠나 두 달 만인 1909년 4월 19일 대한제국에 돌아왔다.

이재완과 김택영은 1896년 거행될 예정이었던 明成皇后(1851~1895) 장례식에 大行王后輓章製造官으로 함께 참여했지만, 그 이상의 관계는 불분명하다.¹² 또 김택영은 윤덕영과 늦어도 1903년부터

6 『韶漢堂詩集』 권4, 詩, 己酉稿, 〈二月二十二日 作回國之行 明日宿天生港躉船 傳進士 壽慈 餽玫瑰酒四瓶 戲作長句謝之〉

7 『韶漢堂詩集』 권4, 詩, 乙巳稿, 〈追感本國十月之事〉; 丁未稿, 〈伏聞皇上內禪 感賦〉

8 「張氏病近失眞」, 『皇城新聞』(1908.10.14.), “張志淵安鍾和氏等이 發起하고 上海에 留連하는 金澤榮氏의 歸國旅費를 募集한다고 各報紙에 掲載하였는데 本社에서 確報를 據한즉 張志淵氏는 身病을 因하여 無異失眞에 念不及他호 此는 安鍾和氏가 金氏의 困苦한 情勢를 親知人에게 說明한 所以라더라” 김택영은 1907년 장지연의 事略을 지었고(『合刊韶漢堂集補遺』 권2, 事略, 〈張志淵事畧〉) 1908년 장지연이 직접 난통으로 김택영을 만나러 갔었던 적도 있었을 정도로 가까웠다. 안중화는 『東史節要』(1904)·『國朝人物誌』(1907) 등을 지었던 역사가였으므로, 김택영과 역사 연구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최혜주, 앞의 책(1996), p.28 참조.

9 「金氏歸國」, 『황성신문』(1909.4.21.), “淸國上海에 居生活던 金澤榮氏가 再昨日에 率眷歸國한것인데 其旅費는 海豐府院君 尹澤榮氏의 兄弟가 各三十圓 完順君 李載完氏의 兄弟가 各二十圓 合 百圓을 分排支給하였더라.”

10 해당 액수의 환산은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홈페이지의 화폐가치계산(<https://ecos.bok.or.kr/jsp/use/monetaryvalue/MonetaryValue.jsp>) 참조.(2020년 5월 23일 검색)

11 이 내용은 黃玟(1855~1910)의 『매천야록』에서도 확인된다(『梅泉野錄』 권6, 隆熙三年己酉, “尹澤榮·李載崑等 聞而悶之 合資送船費”). 이재근은 이때 學部大臣이었다.

12 『承政院日記』 高宗 32年 11月 22日·23日 참조.

분명 알고 지냈다.¹³ 김택영이 이들과 본격적으로 인연을 맺은 것은 아마 1903년 2월부터 시작된 『增補文獻備考』의 편수에 참여한 일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한다. 『증보문헌비고』는 대한제국이 국력을 기울여 진행했던 國故文獻 정리사업의 결과였다.¹⁴ 이재완의 동생 이재곤과 김택영은 『증보문헌비고』의 편수에 세운 공을 인정받아 함께 포상을 받았다.¹⁵ 연유야 어찌 되었진, 김택영은 이들의 도움으로 귀국하였다. 그러면 김택영은 왜 귀국했고, 이들은 왜 김택영의 귀국을 도왔을까. 그 이유는 사료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갈린다. <사료 3>과 <사료 4>를 보자.

<사료 3>

前 參書 김택영이 通州에서 돌아왔다. 김택영은 張謇(1853~1926)을 따라 통저우로 간 후 장건이 그를 翰墨館의 纂輯役으로 추천하여 적은 봉급을 받고 있었으므로 생활이 매우 어려웠다. 이때 윤택영, 이재곤 등은 이 소문을 듣고 그를 민망하게 생각하여 그의 여비를 보내 주었다. 김택영은 본래 國朝史를 刪述할 뜻이 있었으나 우리나라는 그것을 꺼리고 중국에서는 고증할 만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어떤 요청으로 인하여 한번 고국으로 돌아와서 史記類를 가져가려고 하였다. 그가 이때 고국으로 돌아오자 그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은 벼슬을 얻고 싶어서[戀豆] 온 것이라고 하였다.¹⁶

<사료 4>

해풍부원군 윤택영, 학부대신 이재곤씨 등이 주선해서 상하이에 머물던 김택영씨를 나오게 함은 이미 보도했거니와, 그 내용을 물으니 내각에서 장차 고려 이상의 역사 기록을 편찬 발간하려 한다는데 무슨 곡절이 있는지 지금 바야흐로 다른 논의가 있다고 한다.¹⁷

<사료 3>에서는 김택영이 귀국한 이유를 겉으로는 그의 생활난을 가엾게 여긴 윤택영과 이재곤의 후원으로, 속으로는 “國朝史 刪述”을 위한 자료수집으로 보고 있다. 김택영의 원래 의도는 후자,

13 『韶漢堂文集』 권4, 시, 癸卯稿, 〈訪棚蓮尹公于月波亭 道中有作〉, “招魂何日留連醉 傳語風流尹海州”; 『韶漢堂文集』 권5, 記, 〈靑愚別號記 癸卯〉, “今年春 余因棚蓮堂尹公而識靑愚子.”

14 『증보문헌비고』의 편찬과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정구복, 「『문헌비고』의 자료적 성격과 사학사적 의미」, 『진단학보』 106(2008), pp.167-190. 참조.

15 『승정원일기』 고종 44년 1월 21일, “詔曰, … 中樞院副議長李載崑各熟馬一匹賜給 … 纂輯委員 … 正三品金澤榮 … 各半熟馬一匹賜給.” 단 이는 김택영이 망명간 이후의 일이므로, 김택영이 실제 반숙마半熟馬(거의 다 자란 말) 1필을 받았던 건 아닐 것이다.

16 『梅泉野錄』 권6, 隆熙三年己酉, “前參書金澤榮 自通州東還 澤榮隨張謇往通州 謇薦補翰墨館纂輯之役 沾丐殘俸 生計蕭然 … 澤榮素有刪述國朝史之意 而本國則有忌諱 中國又無考據 故欲因請邀 一還故國 哀聚史乘而去 遂東還 不知者以爲戀豆也.”

17 「有何層節」, 『대한매일신보』(1909.5.22.), “海豐府院君尹澤榮 學大里載崑氏等이 周旋하야 上海에 留連하던 金澤榮氏를 出來케 呼은 已爲報道하 巴어니와 其內容을 聞하 則內閣에서 將次高麗以上史記를 編纂發刊하 터이라하디 何等層節이 有하디 現方貳論中이라더라.” 이 내용의 번역이 미국에서 발행되던 『신한민보』 1909년 6월 16일자에도 실려 있다.

곧 조선왕조-대한제국의 역사자료 수집이라고 말한 것이다. 이와 비슷한 내용이 장지연이 김택영에게 보낸 서간에도 들어 있어, 다른 연구자들도 대체로 여기에 동의하고 있는 듯하다.¹⁸

그런데 〈사료 4〉를 보면, “무슨 곡절이 있길래”라는 제목 아래 흥미로운 내용이 나온다. 윤택영과 이재곤이 김택영을 일부러 귀국하게 했으며, 그 의도는 “內閣에서 將次高麗以上史記를 編纂發刊”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역사 편찬의 주체가 내각이며, 그 대상은 고려 이상, 곧 한국 고종세사이다. 황현의 증언과는 다소 배치되는 내용인데, 아마 김택영이 대외적으로 내세운 이유 또는 윤택영 등의 언론플레이였을 것으로 추정된다.¹⁹

하지만 김택영이 내심 그들의 제안을 수락하여 귀국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료 3〉에서 당시 김택영이 어떠한 요청을 받아서 돌아왔으며, “戀豆” 곧 벼슬을 바라는 마음이 있다는 소문이 지식인 사이에 돌았음을 알 수 있다. 이재곤은 학부대신, 지금의 교육부 장관이었으니 역사서 편찬과도 무관하지 않은 인물이다. 또 이미 김택영은 여러 역사교과서와 『증보문헌비고』 찬술에 참여했던 경력이 있고, 망명 이후에도 『校正三國史記』(1916), 『韓國歷代小史』(1922)처럼 고종세사에 관한 저작을 남기고 있다. 게다가 김택영 스스로 한국에 장기적으로 거주하려는(또 남들이 그를 거주시키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앞서 사료에서 말한 것처럼 가족을 거느리고 왔다는 사실도 그렇거니와, 다음의 사료를 보면 더욱 분명하다.

〈사료 5〉

청나라에 머무르던 김택영씨가 귀국하였는데, 그가 평소 알고 지내던 여러 친구들이 집 한 채를 200원에 사서 주는데 閔衡植氏가 50원을 出捐하였다고 한다.²⁰

〈사료 5〉는 김택영을 위해 친구들이 집을 사주었다는 내용이다. 김택영은 혼자가 아니라 가족을 거느리고 서울에 왔다. 그렇다면 머물 곳이 필요했을 것이다. 그 집을 친구들이 돈을 모아 사주었는데, 가장 큰 돈을 낸 이가 민형식(1875~1947)이었다. 민형식은 閔泳徽(1852~1935)의 양자로 명문거족이었지만, 시문사회에 능했고 羅喆(1863~1916)의 을사오적 암살계획에 돈을 덜 정도로 민족적 성향도 꽤 강한 사람이었다.²¹ 그가 김택영과 “知舊間”이었음을 이 사료는 입증한다. 또 왔다가 금방 다시 돌아간다고 생각했으면 旅舍의 방을 잡거나 집을 빌려 주는 정도로도 충분했을 텐데, 굳이 “結價

18 『韋庵文稿』 권3, 書, 〈答金滄江〉(최혜주, 앞의 책(1996), p.28에서 재인용.)

19 이 기사의 끝에 “어떠한 곡절이 있는지 지금 바야흐로 다른 논의가 있다고 한다.”고 하였던 것도, 김택영을 귀국시킨 일이 윤택영, 이재곤 등의 독단이었을 것이라는 추정을 하게 한다.

20 「釀金買屋」, 『대한매일신보』(1909.5.25.), “淸國에 滯留하던 金澤榮씨가 歸國하였는데 該氏의 知舊間 諸氏가 其家舍壹座를 二百圓에 結價買給하는데 閔衡植氏가 五拾圓을 出捐하였더라” 같은 내용이 『대한매일신보(국문판)』(1909.5.25.)에도 「집값보조」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다.

21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 편, “민형식2”, 『친일인명사전』 2(서울: 민족문제연구소, 2009) 참조.

買給”했다는 점도 김택영 가족의 귀국이 상당히 긴 기간을 상정한 것이었음을, 또는 아예 눌러 살고자 했을 것임을 짐작케 한다.

그러나 김택영은 1909년 6월, 다시 가족을 이끌고 홀연히 서울에서 사라진다. 그가 청나라 옷을 입고 인천에서 煙台로 가는 배에 오른 것은 6월 5일의 일이었다. 당시 『황성신문』은 “큰 기러기는 잡아둘 수 없나니”란 제목 아래 그의 소식을 이렇게 알렸다.

〈사료 6〉

우리 한국의 文章大家로 첫손가락에 꼽히는 김택영씨가 연전에 식구들을 거느리고 상하이에 머무르며 방랑한 지 여러 해가 되었다. 서울에 있는 벗들이 그가 나이들어 머리가 세었음에도 의탁할 데 없음을 안타까워해 여비를 주어 가족을 데리고 귀국한 지 또한 몇 달이었는데, 요즘에 들은 즉 김씨가 처자를 거느리고 간 곳을 알지 못한다 하니 아아! 김군이여 천천히 가지 않으시려는가. 거친 이 세상에서 장차 어디로 가려는가.²²

김택영은 두어 달 남짓 서울에 머물면서 훗날 『한사경』이라는 이름으로 나올 편년사를 엮을 자료를 어느 정도 수집해갔다.²³ 앞서 보았던 장지연, 안종화, 민형식 같은 그의 지인들이 이에 도움을 주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김택영은 서울에 머물며 자료수집만이 아니라, 그가 평소 알고 있던 사람들과 만나고 시문과 서화를 주고받으며 심지어는 후원자를 칭송하는 글까지 지을 정도로 매우 바쁘게 지내고 있었다. 그 증거 중 하나가 다음 장에서 설명할 〈벽수거사정도〉이다.

Ⅲ. 〈벽수거사정도〉의 구성과 내용

〈벽수거사정도〉는 전체 세로 59cm, 가로 627cm 크기의 작품으로, 안중식이 윤덕영의 집을 그리고 김택영이 그 집에 부친 제시와 기문을 石雲 權東壽(1842~?)가 글씨로 써서 한데 엮은 것이다.²⁴ 원래의 裝潢 형태는 분명치 않으나 지금은 제시-〈벽수거사정도〉 正本-〈벽수거사정도〉 草本-기문

22 「高鴻不可弋」, 『황성신문』(1909.7.29.). “我韓의 文章大家로 第一指를 屈하느 金澤榮氏가 年前에 家眷을 率하고 上海에 寓接하야 周流上下하느 지 幾多年이라 在京友人이 其老白首而無依함을 嗟惜하야 盤纏을 辦給하야 奉養歸國하느 지 亦數個月이러니 近日에 聞하느 金氏가 妻子를 率하고 不知去處다 云하느니 嗟乎 金君이여 能不遲遲아 泊泊此世에 去將何之오.”

23 『소호당시집』 권4, 詩, 己酉稿, 〈六月五日晨 潛隨登州商人紀蘭亭出仁川 薙髮作華裝 向晚同紀及諸華商登 輪船向烟台作〉, “一部陽秋狂妄計 歸裝辛苦聚遺書.”; 최혜주, 앞의 책(1996), p.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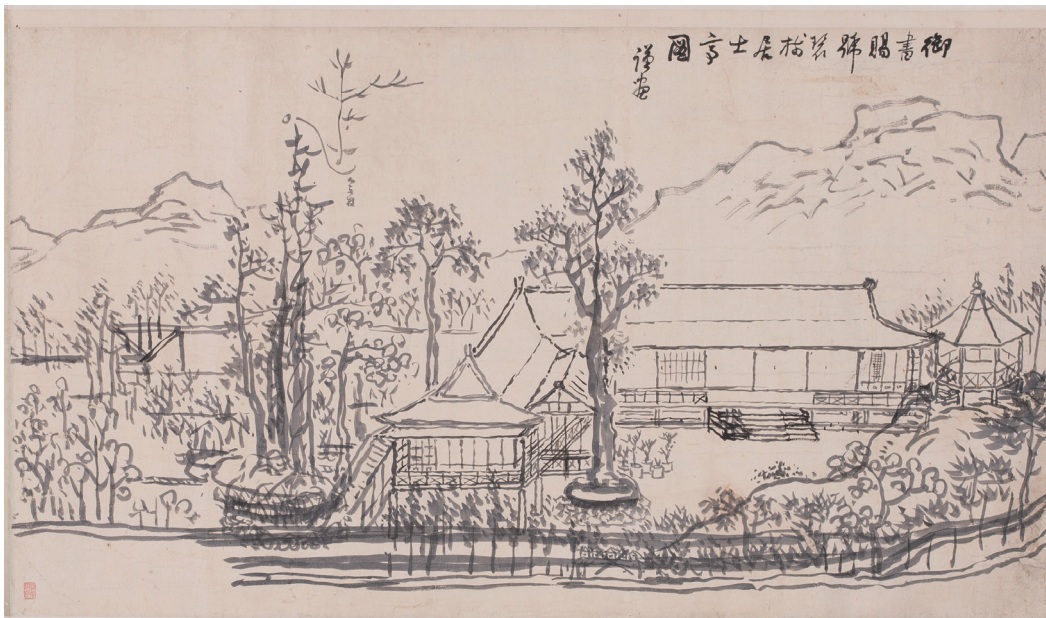
24 현재 개인 소장으로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관에서 개최된 「대한제국의 미술: 빛의 길을 꿈꾸다」(2018.11.15.~2019.2.6.)에서 처음 일반에 공개되었다. 이 작품은 悟堂 金榮世(1908~?)의 소장품이었다고 전한다. 김영세는 경성제일고보를 나와 1930년 경성법학전문학교를 졸업하고 1933년부터 1943년까지 조선총독부 경무국에서 도서검열을 맡았으며, 해방 후에는 三平閣이라는 출판사를 경영했다.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 편, “김영세”, 『친일인명사전』 1(서울: 민족문제연구소, 2009) 참조. 이 글에 수록된 〈벽수거사정도〉 도판의 출처는 다음과 같다. 국립현대미술관 편, 「대한제국의 미술: 빛의 길을 꿈꾸다」(서울: 국립현대미술관, 2018), pp.262-267.

순서로 横軸 장황되어 있다(도 1).²⁵

그림 부분은 크게 비단에 그린 정본과 종이에 그린 초본으로 나뉜다. 상태가 좋은 초본부터 살펴 보면, 약간 연한 먹을 써서 가까이는 서울 碧洞²⁶에 있던 윤덕영의 집과 정원, 멀리는 인왕산과 북악산의 山勢를 빠른 필치로 스케치하듯 그렸다. 가까이 있는 윤덕영의 집은 俯瞰視로 假山 위의 정자와 지붕에 덧붙인 차양, 마당의 큰 은행나무와 화분 등을 자세하게 표현하였다. 계단석 등에는 이리저리 수정한 흔적이 역력하다. 집은 사랑채와 안채로 딱히 구분되지 않은 독채인데 기문에서도 園亭이



도 1. <벽수거사정도>, 1909년, 견본채색 및 지본수묵, 59×627cm, 개인 소장



도 2. 안중식 필, <벽수거사정도> 초본, 1909년, 지본수묵, 세로 59cm, 개인 소장

25 함께 장황된 다른 작품들과 달리 현재 <벽수거사정도> 정본의 화면 상태는 습기와 곰팡이 등으로 인해 매우 불량하다. 이는 <벽수거사정도> 정본이 유리 없이 액자 형태로 걸려 있었고 초본과 제시, 기문은 따로 보관되고 있었을 가능성을 상정하게 한다.

26 종로구 송현동·사간동·중학동에 걸쳐 있던 마을이었다. 이곳이 벽장처럼 동 사이에 길게 끼어 있고, 다락처럼 길가 깊숙한 곳에 위치한 마을인 데서 마을 이름이 유래되었다. 벽장골·다락골이라고도 불렸다. 사간동 91, 97·2번지와 송현동의 미국 대사관 직원 숙소 서쪽 그리고 울곡로가 지나고 있는 중학동 북쪽 일대에 해당된다. 해당 내용은 서울역사편찬원 홈페이지 '서울지명사전'(https://history.seoul.go.kr/nuri/etc/sub_page.php?pidx=146579435936&CLSS1=0&CLSS2=&first_con2=&sSel=sch_all&sText=%EB%B2%BD%EB%8F%99&x=0&y=0) 참조(2020년 5월 23일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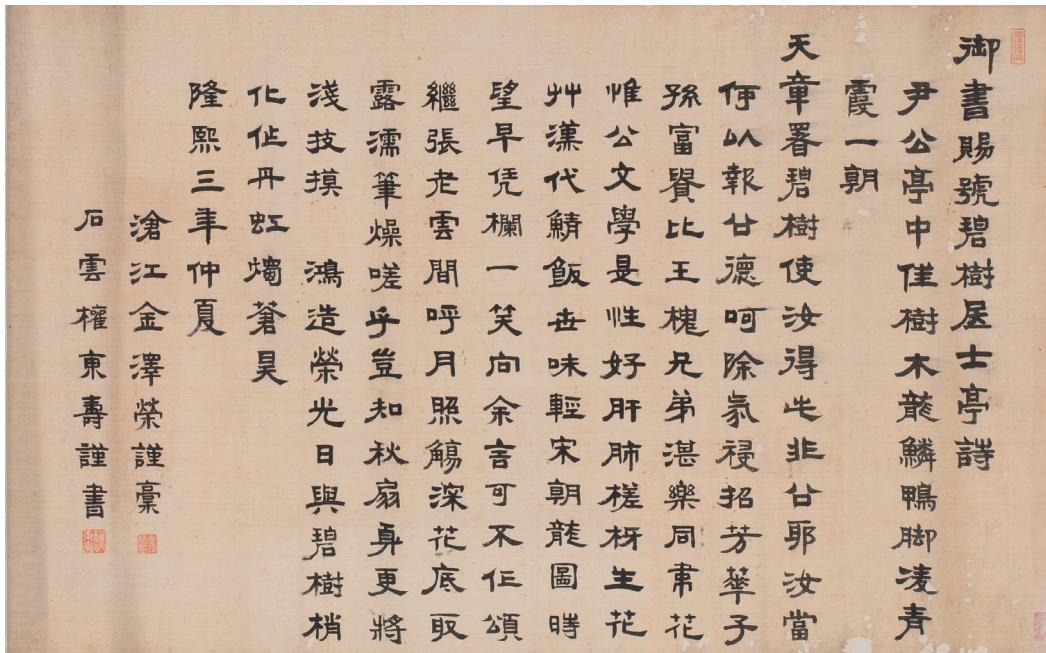
라고 하였으므로 윤덕영이 늘 살고 있는 집이 아닌 후원의 정자이거나 別墅로 추정된다. 많은 종류의 나무들이 뺏뺏하게 심어져 있는데 특히 왼쪽 담장 너머의 나무는 樹枝法을 고쳐서 그려야겠다는 표시가 되어 있다. 이렇게 수정된 사항들은 정본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멀리 있는 산에는 안중식이 흔히 쓰는 皴法이 약간 반영되어 있다. 그 위에 행서로 “御書賜號碧樹居士亭圖 謹畫”라는 화제를 달았다(도 2).

정본은 초본과 구도는 똑같으나 바탕이 비단이기 때문인지 초본보다 훨씬 가는 붓으로, 조심스럽게 그렸다. 집 전체와 거기 덧붙은 차양의 구조가 뚜렷하며, 나무들도 靑綠을 써서 강조하고 있다. 단 화면의 상태 때문에 집 뒤의 산세는 분명하지 않다. 예서로 “御書賜號碧樹居士亭圖”라 적은 뒤에 “時隆熙己酉 榴夏上澣 安中植謹畫”라고 작은 글씨로 적어놓고 있어, 이 그림이 그려진 연대가 1909년 음력 5월 상순임을 알 수 있다. 안중식이 實景을 그린 그림은 현재 이 작품을 제외하면 〈靈光風景〉(병풍, 1915년 제작, 현재 리움 소장)과 〈白岳春曉〉(1915년 제작, 국립중앙박물관 소장(2점))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이 작품은 보기 드문 안중식의 실경산수일 뿐만 아니라 작품의 제작과정을 파악할 수 있고, 20세기 초 서울 상류주택의 면모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미술사·건축사·사회사적 의미가 크다(도 3).²⁷



도 3. 안중식 필, 〈벽수거사정도〉 정본, 1909년, 견본채색, 세로 59cm, 개인 소장

27 〈벽수거사정도〉 제작 이후 이 집의 운명을 보여주는 듯한 기록이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내동리 명물—松峴洞 殖銀村」, 『동아일보』(1924.6.29.), “송현동 일대는 殖銀舍宅이 차지하고 말았습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조선인 경성의 몰락을 알 것이 아닙니까? 이 집의 前身은 부원군보다도 대갈장군의 아우로 유명한 尹澤榮(1876~1935)씨의 집이 되어 한참은 들쭉들쭉 하였으나 형태가 지새가면서 너무 과분하게 떠돌고 지낸 까닭인지 이 집을 지니지 못하고 학생 기숙관으로 세를 놓아먹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殖産銀行으로 들어 밀고 말았습니다. 식은에서 이 집 부근의 8천 5백 평을 사서 헐고 미국에서 유행하는 근대식으로 서른 네 채의 굉장한 사택을 짓기에 3년의 세월과 70만 원의 금액이 들었습니다.” 강명관 풀어 엮음, 『사라진 서울』(서울: 푸른역사, 2009), p.273에서 재인용.



도 4. 김택영 한 권동수 서, 〈벽수거사정도〉 제시, 1909년, 지본수묵, 세로 59cm, 개인 소장

글씨 부분은 크게 제시와 기문으로 나뉜다. 둘 다 김택영이 짓고 권동수²⁸가 썼으며, 각자 자신의 도장을 찍었다. 권동수는 행서와 전서에 능했다고 알려져 있는데²⁹ 여기서는 기문을 행서로 쓰고 제시를 예서로 썼다.

제시의 제목은 “御書賜號碧樹居士亭詩”이다. 이 제시는 『소호당문집』 권4, 己酉稿에도 〈爲棚蓊尹公恭題御書碧樹居士亭額後〉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도 4).³⁰

〈사료 7〉

윤공의 정자 안에 아름다운 나무 있어 / 尹公亭中佳樹木
나무껍질과 이파리 푸른 노을을 뚫고 섰다 / 龍鱗鴈脚凌靑霞
하루아침에 천자의 글로 ‘벽수’라 親署하니 / 一朝天章署碧樹

28 권동수(1842~?)의 본관은 安東, 자는 致永, 호는 石雲이다. 갑신정변 이후 일본에 망명해있던 金玉均(1851~1884), 朴泳孝(1861~1939) 등을 암살하기 위해 일본에 건너왔으나 실패했고, 1898년 만민공동회 탄압에 앞장섰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권동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3,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5) 참조.

29 吳世昌 編, 『權域書畫徵』(경성: 계명구락부, 1928), “權東壽 … 行書學王維珍 穠然流暢 工篆籀 所撫鼎彝文字 多行於世.”

30 이 시의 원문과 번역은 국립현대미술관 편, 앞의 책(2018), p.265; 정석태·남춘우 역, 「허거 윤공을 위하여 어필 벽수거사정 현관 끝에 삼가 쓰다」, 『소호당집』 2(부산: 점필재, 2018), pp.141-143을 참고하여 문맥이 맞지 않는 부분을 다듬었다.

그대로 하여금 이 글 얻음은 공의 힘 아니라 / 使汝得此非公耶
 그대 마땅히 무엇으로서 공의 德을 갚으리오 / 汝當何以報公德
 아! 요망한 기운 막고 향기로운 꽃 불러들였도다 / 呵除氛侵招芳華
 자손의 부귀함은 해나무 심던 王祐³¹에 견주겠고 / 子孫富貴比王槐
 형제가 즐거워함은 韋氏 댁 꽃³²과 같도다 / 兄弟湛樂同韋花
 생각건대 공의 품성이 문자를 좋아하여 / 惟公文字是性好
 간과 폐에서 화초가 빼죽빼죽 자라나는 듯하네 / 肝肺槎枒生花草
 한나라 때 鯖飯³³ 먹던 재미는 가벼웠고 / 漢代鯖飯世味輕
 송나라 龍圖閣³⁴은 기대를 일찍 받았다네 / 宋朝龍圖時望早
 난간에 기대어 한 번 웃고 나를 향해 말하기를 / 凭欄一笑向余言
 張老³⁵를 이어 頌을 짓지 않으시겠소 / 可不作頌繼張老
 구름 사이에서 달을 부르니 술잔 깊이 비치고 / 雲間呼月照觴深
 꽃 밑에서 이슬을 모아 마른 붓을 적신다오 / 花底取露濡筆燥
 어찌 뜻하였으랴, 소신의 버림받은³⁶ 몸뚱이가 / 豈意小臣秋扇身
 다시 얇은 재주를 가지고 어필을 본뜰 것을 / 復將淺技摸鴻造
 영화로운 빛 나날이 푸른 나무[碧樹] 곁머리에 / 榮光日與碧樹梢
 붉은 무지개를 만들어 푸른 하늘을 비추리라 / 化作丹虹燭蒼昊

융희 3년 仲夏(음력 5월)에 창강 김택영은 삼가 짓고 석운 권동수는 삼가 쓰다.

제시와 그림의 뒤에는 기문(도 5, 6)이 이어진다. 기문의 내용은 純宗(재위 1907~1910)에게서 〈碧樹居士亭〉이라는 어필 편액을 하사받은 윤덕영이 이에 감응하여 김택영에게 銘과 詩를 부탁하니 지어준다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윤덕영이 큰 은행나무 두 그루가 있는 벽동의 園亭을 사서 잘 가꾸었

31 송 태종 때 병부시랑을 지낸 왕호가 집에 해나무 세 그루를 심고 자손 중에三公이 나올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과연 그 아들 王祐가 재상이 되었다고 한다(蘇軾, 〈三槐堂銘〉).

32 당 말기 員外 자리에 있던 위씨의 집에 宗員들이 모여 회의를 하며 骨肉之情을 돈독하게 하였다고 한다(岑參, 〈韋員外花樹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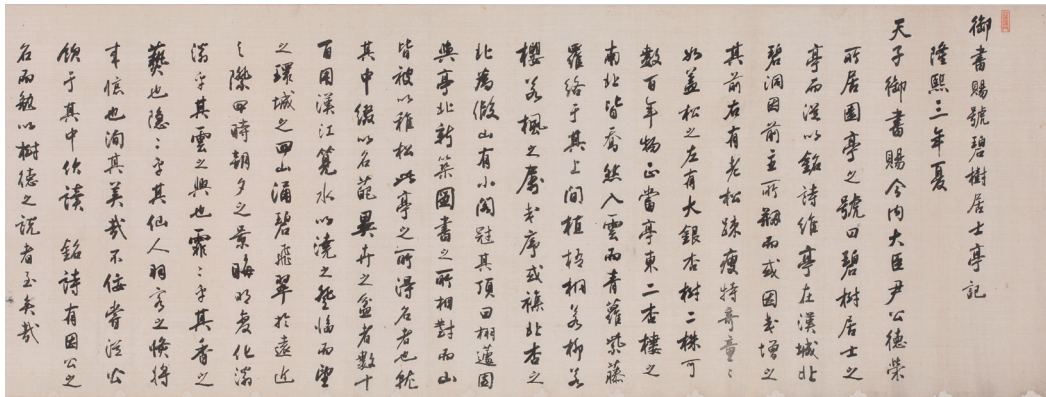
33 漢 成帝 시절 언변이 좋았던 樓護라는 이가 다섯 제후 댁에서 받아온 음식을 모아 끓인 요리, 곧 五侯鯖으로 곧 천하의 진미를 일컫는 관용어가 되었다(『西京雜記』).

34 龍圖閣直學士로 있던 송의 재상 范仲淹(989~1052)을 일컫는 듯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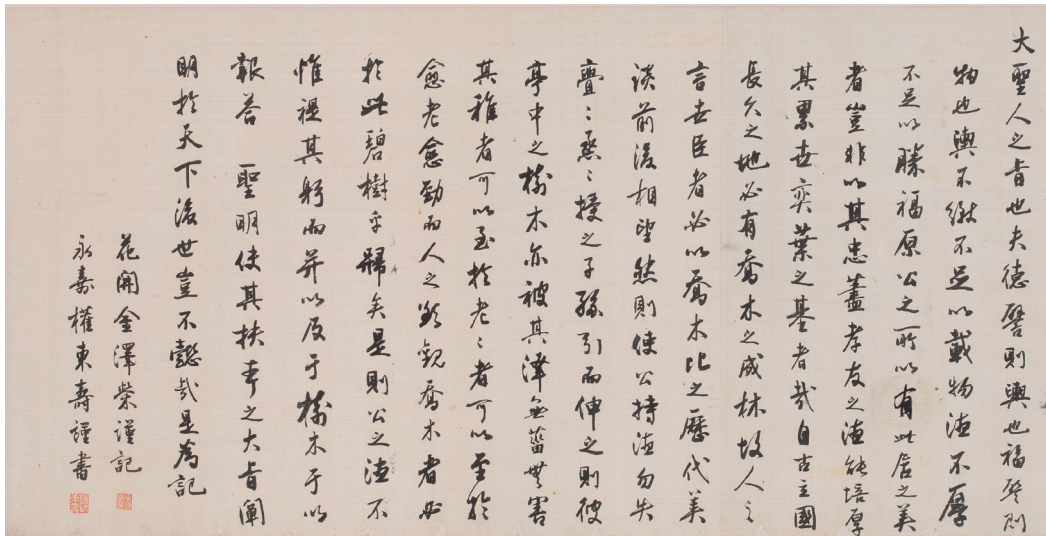
35 晉 文子가 집을 지었을 때, 大夫 장로가 “아름답다! 높고 크며, 아름답다! 없는 게 없네.”라고 했다는 고사가 있다(『禮記』, 檀弓 下).

36 漢 成帝의 후궁 班婕妤가 참소를 받아 버림받자, 자신의 신세를 가을이 되어 필요없어진 부채에 비유한 〈怨歌行〉을 지었던 데서 유래한 표현이다(『漢書』 권97, 列傳 外戚 下).

고, 김택영 본인이 그와 더불어 술도 마시고 〈樹德之說〉이라는 글³⁷을 지었던 인연이 “대성인의 뜻”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喬木世家的 후예인 윤덕영이 집을 잘 지키고 정원의 나무를 잘 가꾼다면 후손과 황실에 크나큰 도움이 되리라는 말로 끝을 맺고 있다.³⁸ 이 또한 권동수가 글씨를 썼다. 시와 달리 이 기문은 『소호당문집』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벽수거사정도〉는 김택영의 미공개 문학작품을 드러냈다는 데서도 의의가 크다.



도 5. 김택영 찬 권동수 서, 〈벽수거사정도〉 기문, 1909년, 지본수묵, 세로 59cm, 개인 소장



도 6. 김택영 찬 권동수 서, 〈벽수거사정도〉 기문, 1909년, 지본수묵, 세로 59cm, 개인 소장

37 『韶漢堂文集』에서는 확인할 수 없으나, 김택영의 다른 문집에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은 있다. 추후 확인을 필요로 하지만 제목으로 보아 윤덕영의 호와 이름을 연관 지은 내용으로 추정된다.

38 국립현대미술관 편, 앞의 책(2018), pp.266-267의 원문과 번역 참조.

하지만 현정의 대상이 일본에 협력한 윤덕영이라는 점에서, 지금의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작품은 아니다. 그러나 이 작품은 엄연히 현존하며, 시의 경우 김택영이 自選하여 문집에 싣기도 했다. 단순히 여비를 마련해준 데 대한 부채의식의 발로였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만 보기에는 시와 기문의 내용이 꽤 내밀한 곳까지 다다라있다. 이것이 가능했던 까닭은 무엇일까. 김택영의 1909년을 한번 되짚어보며 그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자.

IV. 1909년, 김택영의 교유 관계망

우선 <벽수거사정도>에 관여했던 안중식, 권동수가 김택영과 어떤 관계였는지 알아보자. 김택영이 귀국한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그는 다음과 같은 시를 지었다.

<사료 8>

작년에는 상하이 바닷가에서 놀았더니 / 前年游滬濱
올해는 西湖에서 노닐었다오 / 今歲游西湖
문득 바람을 다스려 돌아오니 / 泠然御風返
구름의 기운이 옷섶을 적셨다오 / 雲氣沾在裾
심전 선생을 오래 못 만났다 다시 서로 만났네 / 邂逅相逢心田子
술이 얼근해지니 <귀래도>를 그리겠다네 / 酒酣爲作歸來圖
석운 노인이 붓을 움켜잡고 곁에 앉아 지켜보니 / 石翁握筆傍坐睨
내가 시 짓기를 기다려 장차 빠르게 쓰시려네 / 待我詩成將疾書
예찬과 황공망일랑 30리는 뒤로 물러나고 / 倪黃倒退三十里
소동파와 미불의 혼백 응당 놀라 소리치고 / 蘇米魂魄應驚呼
집 앞의 바람과 해 맑은 아름다움 더해가니 / 堂前風日增清美
붉은 도화 웃음짓고 피꼬리와 제비 기뻐하오 / 絳桃花笑鶯燕喜
장대한 경관에 이미 눈동자 속 푸름 더했구나 / 壯觀已添瞳裏碧
기이한 기쁨에 또 숲 속에서 서로 팔뚝을 붙든다 / 奇懽又把林中臂
하늘의 복을 탐함은 예부터 경계한 바 / 貪天之福古所戒
아! 내가 비할 바 없는 사치를 만났도다 / 嗟余所遭無乃侈
말하노니 누가 이 좋은 일을 주장했는가 / 云誰主張此好事
이춘영(1563~1606)의 먼 후손인 소운 어른이라 / 體素 李春英 雲孫素雲子³⁹

39 『소호당시집』 권4, 시, 기유고, <還國初 李素雲 源昇 爲余囑安心田 中植 寫歸來圖 仍勸余賦其事 而請權石雲 東壽 書之

〈사료 8〉은 김택영이 1909년 귀국했을 당시 素雲 李源昇의 주선으로 안중식이 김택영을 위해 〈歸來圖〉를 그리고, 그 위에 김택영의 시를 권동수에게 쓰도록 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벽수거사 정도〉에 참여한 이들이 모두 여기에 등장하는 점이 주목되는데, 여기 등장하는 이원승은 조선 후기 시인으로 유명했던 東樊 李晩用(1802~?)의 증손이다. 김택영은 일찍이 이만용의 문집 『東樊集』을 刪定했던 적이 있다. 그리고 이원승은 김택영이 청나라로 떠난 뒤인 1909년 겨울, 全史字로 김택영의 산정을 거친 『동변집』을 간행했다.⁴⁰

김택영은 이 시에서 안중식과 권동수의 숨씨를 중국 역대의 대가들도 따라가지 못할 정도라고 극찬하고 있다. 권동수의 경우는 분명치 않지만, 안중식과는 예전부터 면식이 있었던 듯 “邂逅相逢”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이 사료는 김택영이 안중식이나 이원승 같은 중인, 庶流 출신 지식인과의 일찍이 교류하고 있었으며, 그 교류가 1909년에 이르러서도 이어졌음을 알게 한다.

김택영은 이때 몇몇 사람과만 접촉한 건 아니었다. 金允植(1835~1922)의 『續陰晴史』에는 김택영이 귀국한 지 일주일 만인 4월 26일 김윤식이 그를 만나러다 실패한 이야기가 나온다.⁴¹ 이에 따르면 김택영은 안중화, 柳正秀(1857~1938), 玄采(1886~1925)와 만나고 있었다. 이들은 모두 대한제국의 관료였고 역사에 조예가 깊은 인물들이었다.⁴² 김택영은 구례의 황현에게도 서간을 보내 만나기를 바랐는데⁴³ 그가 청으로 떠난 뒤에야 황현이 서울에 왔던지라 둘은 살아생전 다시 만나지 못했다.⁴⁴ 하지만 김택영은 난통에 온 이후 황현에게 자신이 한국에 돌아왔던 顛末을 설명한 서간을 보냈던 것으로 보인다.⁴⁵

김택영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1841~1909)를 따라 서울에 왔던 일본 시인 모리 카이난(森槐南, 1863~1911)과도 시를 주고받았다.⁴⁶ 김택영은 모리 카이난을 상당히 높이 평

圖尾, “前年游滬濱 今歲游西湖 冷然御風返 雲氣沾在裾 邂逅相逢心 田子 酒酣爲作歸來圖 石翁握筆傍坐晚 待我詩成將疾書 倪黃倒退三十里 蘇米魂魄應驚呼 堂前風日增清美 絳桃花笑鶯燕喜 壯觀已添瞳裏碧 奇懷又把林中臂 貪天之福古所戒 嗟余所遭無乃侈 云誰主張此好事 體素 李春英 雲孫素雲子。”

40 『東樊集』 권4, 이원승, 〈東樊集跋〉, “是以 囑滄江子金澤榮 就詩選擇 以訖刊役.”

41 『속음청사』 권13, 隆熙三年己酉, “二十六日初七日丙辰月 午前陰 午後雨至夜 亦甘雨也 仕進樞院 歸路訪金滄江(澤榮) 不遇 滄江五年前移家中國通州 今始還國 訪安承旨鍾和 柳協辦正秀 玄白堂采.”

42 안중화와 현채는 대한제국기 애국계몽운동에 깊이 관여하여 많은 역사교과서를 썼으며, 유정수는 1916년 1월 『朝鮮半島史』 편찬사업, 8월 일제의 古蹟調査委員會에 참여한 적이 있다.

43 『梅泉集』 권5, 詩, 己酉稿, 〈春間滄江東還馳書要見 至秋余始入都則滄江已歸矣 悵然有作〉

44 『매천집』 권5, 시, 기유고, 〈除夜憶滄江〉; 庚戌稿, 〈正月二十三日得滄江穀日見寄詩和之〉; 〈又和滄江寄季方之作〉

45 『梅泉野錄』 권6, 隆熙三年己酉, “居數月 薙髮清裝 偕清商逕發 復歸通州 澤榮始還 貽余書 已言其夙志 既歸 又有書 言方下手于編年史 澤榮舊無子 入清後 育一子 名光虎.”

46 森槐南은 메이지 시대의 시인이자 관료로, 본명은 公泰 또는 泰二郎이며 槐南은 호이다. 이토 히로부미가 통감이 되어 한국에 왔을 때 그를 수행하여 같이 왔고, 한국의 여러 지식인들과 한시를 주고받으며 친교를 맺었다. 1909년 10월 만주 시찰에 나선 이토 히로부미를 수행해 도착한 하얼빈 역에서 安重根(1879~1910) 의사의 총을 맞고 그 후유증으로 사망하였다. 森槐南과 한국 지식인의 교류에 관해서는 박영미, 「森槐南의 경우로 본 애국계몽기 지식인의 對日 인식」, 『한문학논집』 33(2011), pp.181~202 참조.

가하여, 그의 시문이 중국이나 조선의 그것에 비교해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보았다.

〈사료 9〉

우주 안에서 가락이 같음은 사람의 성품이 같음과 같다. 서양의 시는 내가 알지 못하지만, 일본의 시 같으면 잘 된 것은 그 聲律의 조화로움이 중국이나 조선의 시와 다를 것이 없었다. 내가 일찍이 모리 카이난의 시를 보고 그러함을 알게 되었다.⁴⁷

김택영은 이미 1898년 무렵 일본 공사관 서기 아마요시 모리요시(山吉盛義, 생몰년 미상)의 시를 보고 일본의 한문학 수준을 인정하고 있었다.⁴⁸ 〈사료 9〉는 그러한 그의 관점이 일본에 의한 國亡이 가까워졌을 때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음을 입증하며, 아울러 그가 일본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배척한 것은 아님을 의미한다.

1909년 김택영이 대한제국으로 돌아온 뒤 두 달이 채 안 되는 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교유의 범위는 대략 이러하였다. 그것은 신분, 관직, 국적 어느 면으로 보나 상당히 넓었으며, 문학 교유에만 그치지 않고 때로 금전적 지원까지 주고받을 정도로 깊었다. 이는 당시 지식인들 사이의 교유 관계망이 정치적인 입장이나 나이, 신분과는 큰 상관없이 유지되었고 심지어는 벗어나 있던 사람이 돌아올 수 있도록 실질적 도움을 주는 데 이르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김택영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경우에도 서로를 중심으로 한 교유 관계망이 마찬가지로 작용하였으리라 추정된다.⁴⁹

현재 전해지는 合作圖나 雅集帖 등을 보면 근대 한국 지식인들이 매우 폭넓게 교유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애국지사로 알려진 인물도 친일파뿐만 아니라 중국인, 일본인과 한 자리에서 시서화를 주고받는 일이 적지 않았다. 예컨대 吳世昌(1864~1953)이 주도한 漢衙雅集의 경우, 1924년 10월 30일부터 1925년 3월 23일까지 총 25회의 시회가 열렸는데 거기 참여한 인물 중에는 金敦熙(1871~1936)처럼 친일행적이 꽤 뚜렷한 이부터 朴漢永(1870~1948) 같은 승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이들뿐 아니라 당시 지식인들의 집에는 크고 작은 술자리가 끊이지 않았고 여기에서는 다양한 창작과 비평이 이루어졌다.⁵⁰ 〈벽수거사정도〉의 제작도 결국에는 윤덕영을 한 축으로 하는 교유 관계망의 작동이 있었기에 가능하였을 것이다.

47 『소호당문집』 권8, 「雜言」, 잡언 9, “宇宙間聲調之同 猶人性之同 泰西之詩 吾不知已 如日本之詩之工者 其聲律之諧 未嘗異於中國朝鮮 吾嘗見森槐南之詩而知其然耳.”

48 『소호당문집』 권3, 시, 戊戌稿, 〈代人和日本人米溪咏殘螢〉, “日月不爲大 殘螢不爲小 請除分別心 與我遊天表” 아마요시 모리요시는 1898년 일본 공사관이 있던 진고개에 南山吟社를 설립하여 한국인 문인들과 시문을 수창하며 교유하였다고 한다. 國史編纂委員會 編, 『大韓季年史』上·下(서울: 國史編纂委員會, 1957), p.224.

49 19세기 말~20세기 초 문인·관료 지식인들의 문학을 매개로 한 교유 관계망에 관해서는 다음의 논문들이 참고된다. 강명관, 「일제초 구지식인의 문예활동과 그 친일적 성격」, 『창작과비평』 16(1988), pp.141-172; 김예진, 「일제강점기 詩社 활동과 書畫合璧圖 연구」, 『미술사학연구』 268(2010), pp.195-227; 정해리·유창진, 앞의 논문(2012), pp.379-389; 김용태, 「김윤식과 스에마쓰겐초의 시문 수창에 대하여」, 『열상고전연구』 42(2014), pp.74-96.

50 김예진, 「한동아집첩(漢衙雅集帖)과 오세창의 시회활동(詩會活動) 연구」, 『동양학』 48(2010), pp.105-129 참조.

V. 맺음말

김택영의 교유관계는 황현처럼 殉國을 택한 인물부터 윤덕영처럼 황실의 외척이자 일제에 협조한 인물, 심지어 일본인에 이르기까지 매우 넓었다. 김택영이 남긴 <벽수거사정도> 제시와 기문은 그 교유의一端을 보여준다.

물론 김택영의 문집 중에서 윤덕영을 비롯한 친일 인사, 일본인과 직접 연결되는 작품은 드문 편이다. 그러한 작품이 김택영의 작품세계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낮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10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보면 어떨까. 장지연이 주필로 있던 『慶南日報』는 1910년 3월 12일과 14일, 두 번에 걸쳐 김택영의 시 <贈森槐南>과 <偶成續贈槐南>을 싣는다. 이는 한국통감부의 관료로 이 땅에 왔던 일본 시인 모리 카이난에게 주는 시였다. 모리는 시인이기 이전에 일제의 정책을 구현하는 관료였다. 허나 김택영을 비롯한 한국 지식인들은 모리를 시인으로만 인정했고 기억하고자 했다.⁵¹

이는 예전 조선통신사가 그랬듯 시문의 唱酬로서 서로 소통하고 우의를 다지는 한편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고자 하는 理想의 표현이었을 것이다. 그 이상은 식민지화라는 현실에 부딪혀 동상이몽으로 끝나버렸지만, 김택영에게는 꽤 유용한 무기였다고 보인다.⁵² 지금의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힘든 <벽수거사정도> 제시와 기문 같은 김택영의 작품, 그리고 그의 행보는 이러한 시대의 맥락 속에서 살펴보고 해석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51 박영미, 앞의 논문(2011), pp.190-195.

52 이러한 모습은 김윤식과 스에마쓰 겐초(末松謙澄, 1855~1920)의 사례에서도 확인된다. 김윤식은 스에마쓰와 시종 우호적인 관계 속에서 시문을 주고받았지만, 김윤식이 시문 속에서 유학적 도리를 강조한 데 비해 스에마쓰는 일본의 우세를 확인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김용태, 앞의 논문(2014), pp.81-85.

참고문헌

【1차 문헌】

『權域書畫徵』

『東樊集』

『大韓季年史』

『梅泉野錄』

『梅泉集』

『韶濩堂文集』

『韶濩堂詩集』

『承政院日記』

『綱陰晴史』

『慶南日報』

『大韓每日申報』

『신한민보』

『皇城新聞』

【도록 · 보고서】

국가보훈처 편, 『독립유공자 공훈록』 24, 세종: 국가보훈처, 2019.

국립현대미술관 편, 『대한제국의 미술: 빛의 길을 꿈꾸다』, 서울: 국립현대미술관, 2018.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 편, 『친일인명사전』 1, 서울: 민족문제연구소, 2009.

_____, 『친일인명사전』 2, 서울: 민족문제연구소, 2009.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3,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5.

【단행본】

김택영 저, 정석태 · 남춘우 역, 『소호당집』 2, 부산: 점필재, 2018.

강명관 풀어 엮음, 『사라진 서울』, 서울: 푸른역사, 2009.

최혜주, 『滄江 金澤榮의 韓國史論』, 서울: 한울, 1996.

【논문】

강명관, 「일제초 구지식인의 문예활동과 그 친일적 성격」, 『창작과비평』 16, 1988.

김예진, 「일제강점기 詩社활동과 書畫合璧圖 연구」, 『미술사학연구』 268, 2010.

_____, 「한동아집첩(漢衙雅集帖)과 오세창의 시회활동(詩會活動) 연구」, 『동양학』 48, 2010.

김용태, 「김윤식과 스에마스켄초의 시문 수창에 대하여」, 『열상고전연구』 42, 2014.

박영미, 「森槐南의 경우로 본 애국계몽기 지식인의 對日 인식」, 『한문학논집』 33, 2011.

정구복, 「『문헌비고』의 자료적 성격과 사학사적 의미」, 『진단학보』 106, 2008.

【홈페이지】

서울역사편찬원(<https://history.seoul.go.kr>)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s://ecos.bok.or.kr>)

Kim Taek-yeong's Return to Korea in 1909 and *Scholar Byeoksu in a Pavilion* by An Jung-sik

Kang MinKyeong*

Scholar Byeoksu in a Pavilion by An Jung-sik (1861–1919; sobriquet: Simjeon) was first shown to the public in the exhibition Art of the Korean Empire: The Emergence of Modern Art at the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Deoksugung. This painting bears poems and inscriptions composed by Kim Taek-yeong (1850–1927; sobriquet: Changgang) and written by Kwon Dong-su (1842–?; sobriquet: Seokun). A rare example of an actual-view landscape painting by An Jung-sik, this painting is significant in that it depicts upper-class houses in Seoul in the early twentieth century. More importantly, it demonstrates an association among intellectuals of the time.

Yun Deok-yeong (1873–1940; sobriquet: Byeoksu), who asked An Jung-sik to create this painting, was an uncle of Empress Sunjeonghyo (1894–1966), the consort of Emperor Sunjong. He was one of the most prominent collaborators who promoted the Japanese colonization of Korea. When Emperor Sunjong bestowed Yun Deok-yeong with a hanging board with an inscription reading “Scholar Byeoksu in a Pavilion,” Yun requested the production of this painting to mark the event. Kim Taek-yeong, a master of Chinese literature during the late Korean Empire period, sought asylum in Nantong, Jiangsu Province in China with his family a month before the Protectorate Treaty was signed between Korea and Japan in 1905. In 1909, he returned to Korea. His decision to return was greatly influenced by Yun Deok-yeong and Yi Jae-wan (1855–1922). Upon his return, Kim Taek-yeong intended to gather materials for publishing a history book. Also, Kim continuously met his old acquaintances, made new friends, and socialized with them. He built relationships with people from various backgrounds, including those living in regions like Gurye, and even in other countries like Japan. This indicates that intellectuals of the time were still forming networks through poems and prose regardless of their political inclination, social rank, or nationality. *Scholar Byeoksu*

* Curator of the Archaeological and History Division at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in a Pavilion is of great value in that it shows an aspect of the intellectual exchanges among the learned people of the late nineteenth and early twentieth centuries.

Keywords: Kim Taek-yeong, An Jung-sik, Yun Deok-yeong, *Scholar Byeoksu in a Pavilion*, 1909